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5

▶ 36회 예고
빈두사라왕이 파견한 특사일행이 웃자인에 온다. 특사 단장은 라다굽따 제관이다. 라다굽따는 아쇼까의 어머니 다르마왕비와 부인 아상디밋따의 편지를 전한다. 다르마왕비는 아쇼까에게 비가따쇼까 동생이 태어났음을 알린다.



담마팔, 데비 전생과 금생 말하다

아쇼까는 꼭두새벽에 눈을 떴다. 잠을 더 자고 싶었지만 신경이 곤두섰다. 높은 천정에서 자꾸만 무슨 소리가 났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니 도마뱀이었다. 도마뱀 세 마리가 천정에 붙은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슬금슬금 기어가고 있었다. 하의만 갈아입은 아쇼까는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그러자 푸른 새벽빛이 방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새벽빛에 놀란 도마뱀들이 재빨리 창턱 너머로 도망쳤다. 아쇼까는 밤안개에 젖은 축축한 새벽공기를 들이마셨다.

저택 주위에는 호위군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서 경계를 서고 있었다. 정원 한쪽 빈터에서는 화톳불 연기가 피워 올랐다. 밤새 경계를 섰던 호위군사들이 젖은 몸을 말리는 중이었다. 아쇼까를 발견한 호위대장이 저택 2층으로 올라왔다.

"베디샤나가르 마을에는 오후에 가기로 돼 있지요?"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전에 데바 저택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만 비켜 보시오."

아쇼까가 호위대장을 창문에서 비켜서게 했다. 말을 타고 누군가가 지나가고 있었다. 아쇼까는 문득 데비가 아닌가 싶어 창문으로 다가갔다. 말을 타고 가는 여인은 데비가 틀림없었다. 데비는 곧 정원을 지나치더니 안개 저편으로 사라졌다. 아쇼까가 말했다.

"새벽에 데비는 어디로 가는 것이오?"

"아침저녁으로 어머니를 위해 산치 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름다운 일이오."

"베디샤나가르 사람들은 여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비라고 부릅니다."

아쇼까는 데비가 사라진 안개를 잠시 응시했다. 아쇼까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아쇼까가 말했다.

"대장, 군마를 준비하시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산치 동산이오. 담마팔 사문을 만나야겠소. 호위군사를 붙이시오."

"사문은 왜 만나시려고 합니까?"

"사문에게 데비가 어떤 여인인지 듣고 싶소."

호위대장은 즉시 2층에서 내려와 군마를 준비시켰다. 그리고 자신과 행동을 함께할 호위군사 5명을 차출했다. 아쇼까는 군마의 말고삐를 건네받고는 바로 달렸다. 호위대장도 아쇼까를 뒤따랐다. 잠시 후 아쇼까와 호위대장, 호위군사 5명은 말발굽 소리만 남긴 채 짙은 안개 속에 섞여버렸다.

아쇼까는 어제저녁에 왔던 길을 기억하면서 달렸다. 호위대장이 바짝 뒤따르며 샛길로 빠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유도했다. 호위대장은 아쇼까보다 베디샤나가르나 산치의 지리에 익숙했다. 누구라도 샛길로 빠지면 비슷비슷한 들판이나 구릉이 나와 방향을 잃기 일쑤였다.

아쇼까는 호위대장을 가끔씩 뒤돌아보면서 길을 잃지 않았다. 이윽고 안개 속에서 산치 동산이 흐릿하게 보였다. 어제 오후에 지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석양을 보았던 바로 그 동산이었다. 아쇼까는 손을 들어 뒤따라오는 호위대장과 군사들을 멈추게 했다. 호위대장이 아쇼까가 탄 군마 앞으로 와서 섰다. 아쇼까가 말했다.

"담마팔 사문이 있는지 모르겠소."

"소장이 사문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니오. 내가 절로 들어가겠소. 대장은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시오."

아쇼까는 호위대장이 절 문 밖까지만 오게 했다. 호위군사들의 군마가 절 경내로 들어와 소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어서였다. 아쇼까는 군마에서 내려 바로 절 경내로 들어갔다. 때마침 늙은 담마팔이 나와 아쇼까를 맞이했다.

"부왕님이시여, 무슨 일로 또 오셨습니까?"

"어제 나는 사문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소. 그래서 또 찾아온 것이오."

"보잘것없는 소승을 또 찾아오시다니 뜻밖이옵니다."

담마팔은 아쇼까를 회랑처럼 생긴 길쭉한 베란다로 안내했다. 베란다에는 여남은 개의 나무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었다. 승려들이 앉아서 담소하거나 명상을 하는 그런 용도의 의자였다. 담마팔이 아쇼까에게 한가운데 의자에 앉기를 권했다.

"부왕님이시여, 앉으십시오."

"사문도 가까이 앉으시오."

"안개가 걷히면 지평선이 잘 보이는 자리입니다."

"사문이시여, 나는 지평선을 보러 온 것이 아니오. 알고 싶은 것이 있소."

"무엇을 알고 싶은 것입니까?" "사문도 알고 싶고, 데비도 알고 싶소."

어린 사미가 탁자 위에 물이 담긴 토기 두 개를 놓고 갔다. 목이 말랐던 아쇼까는 단숨에 물을 들이켰다. 담마팔이 아쇼까가 물을 마시는 동안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말했다.

"소승은 사끼야족 끄샤뜨리야로 베디샤나가르 마을 태생입니다. 출가하여 데바 수장님의 부탁으로 줄곧 산치 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비를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비는 어떤 여인이오?"

"부왕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어느 순간 데비의 전생과 금생, 또는 후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저 안개가 걷히면 들판과 구릉, 강이 드러나듯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문이시여, 사문의 신분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데비에 대해 말해주시오."

"말하겠습니다. 부왕님이시여."

그제야 담마팔도 토기를 두 손으로 받들어 잡고 물을 아끼듯 조금씩 마셨다. 그러나 물이 아까워서 천천히 마시는 것은 아니었다. 물속에 살아 있는 벌레가 있는가 싶어 살피고 있었다. 사문이란 자신이 목마르다고 해서 아주 작은 미물이라도 살생해서는 안 되었다.

"데비님은 전생에 많은 보시를 하여 부호의 딸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금생에도 사문이건 마을 사람들이건 가리지 않고 데바 부인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보시하고 있습니다. 전생과 금생의 복덕으로 장차 데비의 아들딸은 존귀한 귀인이 될 것입니다."

"존귀한 귀인이란 어떤 사람이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오?"

"왕의 길을 가면 수승한 왕이 되고 담마의 길을 가면 수승한 사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 사문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데비야말로 보석 같은 여인이오."

"부왕님이시여, 그렇습니다."

"간밤에 품었던 의문이 풀렸소. 사문과 데비를 알았으니 더 이상 궁금한 것은 없소."

아쇼까는 바로 일어나 절 문을 나섰다. 절의 법당을 들어가지는 않았다. 아쇼까는 아직 법당 안의 장식이 낯설었다.

삘빨라나무와 수레바퀴가 조각된 조형물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도 보는 것조차 어색했다. 조형물들이 데바의 조상 붓다를 상징한다고 하지만 아쇼까로서는 선뜻 이해할 수 없었다. 호위대장이 군마를 끌고 다가왔다.

"사문을 보았습니까?"

"사문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소. 사람을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소."

호위대장은 아쇼까가 누구를 평가하는지 헷갈렸다. 담마팔인지 데비인지 알 수 없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데비는 보석 같은 여인이오. 담마팔 사문에게 확인할 수 있었소."



"그럴 것 같습니다. 베디샤나가르 뿐만 아니라 베디샤 사람들이 여신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내가 데바와 데비를 궁궐로 초대하겠소."

아쇼까는 말고삐를 힘껏 잡아당겼다. 자욱했던 안개는 어느 새 지평선 쪽으로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이번에는 호위대장이 아쇼까 앞에서 선도했다. 군마의 말굽소리에 들판에 내려앉아 먹이를 쪼고 있던 까마귀들이 까악까악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기도를 끝낸 데비가 법당에서 나오자 담마팔이 다가와 말했다.

"방금 부왕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사문이시여, 오늘 새벽 기도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순일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왕님 때문일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 기도도 그러합니다."

데비는 담마팔의 말을 믿었다. 아쇼까가 절에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제야 데비는 기도할 때 머릿속을 스쳤던 사람이 아쇼까였다고 자각했다. 자신의 조상이자 위대한 스승 붓다였다면 옆구리에 칼을 차고 있을 리 없었던 것이다. 데비가 절 문을 나서려 하자, 담마팔이 말했다.

"데비님, 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부왕님께 데비님 얘기를 했습니다."

"호호호."

데비가 장난스럽게 소리 내어 웃었다. 자신의 얘기가 아쇼까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투였다. 그러나 담마팔의 표정은 너무 진지해서 그의 머리가 무겁게 보일 정도였다.

"데비님, 부왕님께서 알고 싶어 하시어 데비님의 전생과 금생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문께서 저의 전생과 금생의 일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시프라 강 강물을 들여다보듯 알고 있습니다."

"사문이시여, 저의 전생과 금생의 일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말씀드려야지요. 데비님은 전생에 수많은 보시를 하여 금생에 부호의 딸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금생에도 음식공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데비님의 아들과 딸이 태어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의 얘기를 부왕님께도…"

"그렇습니다. 소승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차마 부왕님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데비님, 죄송합니다. 이제 두 분만 알고 계시니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디샤데비는 담마팔의 이야기를 믿어야할지 말아야할지 망설였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자신의 전생과 금생의 일을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담마팔 사문에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담마팔은 다소 홀가분해했지만 반대로 데비는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 때문인지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담마팔이 비로소 생각난 듯 마저 한 마디 했다.

"부왕님께서 데바 수장님과 데비님을 초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사문이시여! 이 무슨 일입니까?"

"세상 모든 일은 필연입니다. 초대받거든 응하십시오."

데비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원에 베디샤나가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집사 타리쉬가 하인들을 데리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쇼까가 서서 말할 연단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연단 앞면은 생화 아치가 화려했다. 정원 양쪽에 두 줄의 긴 식탁에는 짜빠티와 짜이, 그리고 망고, 바나나, 포도, 석류 등 과일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이윽고 아쇼까가 베디샤데바의 안내를 받으며 연단 위로 올라섰다. 아반띠국을 통치할 부왕 아쇼까였다. 선봉대장과 호위대장이 생화 아치 좌우에서 칼을 치켜들며 예를 갖추자, 베디샤나가르 마을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하듯 아쇼까에게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계속〉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1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1 생명살림 법회(봉은사)'를
BBS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합니다.

◈ 내 용 : 사무량심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선업스님(불교상담개발원장,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부장)
◈ 방송일시 : – TV : 한가위특집
9월 20일(월) 12:30 / 9월 21일(화) 19:30 / 9월 22일(수) 6:30
– 라디오 : 10월 3일(일) 10:00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